

간화선 소개 (2)



2024 년 03월 26 일

维仁 박선흠 / 수선회

Northern California Korean Zen Association

<http://koreanzen.org>



화두참선 제2강 維仁 노트

- 수행을 하실때 도움될 숫타니 파타경의 시한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않는 바람처럼, 또한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여여히 가시라.” (누가 뭐라해도 개의치 말고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생각에 걸리면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니 생각이 공한것을 알아 마음의 힘을 키워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자유다) (연꽃이 흙탕물속에서 자라듯, 고통과 번뇌로 자비와 지혜가 자란다. 세속에 끌려 집착하지마라)
- 우리가 참선공부 특히 화두공부가 뭔지 알아보기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과거 인연따라 각자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셨을텐데요. 다들 태어나고 살아온 인연따라 마음을 닦는 지향하는 바도 각자에따라 다를테고 생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체만물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하셨으니, 겉보기 갖춘 모양은 다르더라도 근본 마음은 같지요.
-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가족 이웃, 사회적인 교육에 의해 가지게 되는 목표와 본성에 따라 수반 되는 탐진치로 인한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자야하고 연인을 만나 사랑하고 돈 많이 벌어 편안한 여생을 설계하고, 적당한 명예와 권력도 가져야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안되니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당장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숙제를 다 못한 것에 대한 걱정, 나의 파트너나 상사가 화나게 하는 것,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의 행복감,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늘 보고 살피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마음입니까? 내보여 주십시오.
- 현실은 있는 듯 느껴지나, 실체가 없는 허상 입니다. 본체가 있는데 조건이 작용하여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 형상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건 찰라에 어떤 조건들로 인해 형성된 현상일뿐 인것이지요. 조건이 없어지면 없는 것입니다. 찰라간에 조건이 변합니다.
- 이렇게 보시지요. 우리가 사는 차원은 몇차원입니까? 현실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3차원이지요. 4차원이 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만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눈금이 1초가 아니라 100년이란 시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안의비설신의 (6근)이 연기에 의해 변화하지요. 아마 여기계신분들은 다 저세상에 가셨을 겁니다. 시간축만 일직선으로 바뀌어도 이렇진데, 시간축과 공간축이 휘어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체계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요.
- 지금부터 잠간 시계의 초단위가 100년이라고 사유 해보시지요. 자꾸 변하겠지요. 지금여기있었는데 다음에는 죽어서 다른 행성이 와있을 수도 있어니 내가 없다고 느껴지겠지요.
- 지금부터 시계 초단위를 마이크로(10^{-6}) 초로 생각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모든게 정지해 있을 테지요. 헌데 제생각은 움직인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고 느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실체는 공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안의비설신의 란 감각의 도구로 색성향미촉법의 경계를 느끼는데, 과연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에 접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경험 과 터득한 지식이 한편 장애가 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으니, 다 내려놓자는(방하착) 것이지요.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들이 친절하게도 참선/화두란 방편을 수백년에 걸쳐서 고안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 부처님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젊은 수좌가 개를 관찰해서 보니 불성이 없는 것같아 물어보니 조주스님은 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째서, 이뿔꼬란 알수없는 의문을 가지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까닭은 무엇인가? 뜰앞의 잣나무이다. 평상심을 가지고 무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이지요.
- 모든 집착을 방하착하며 내려놓으면, 그러면서 그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하면서 돌아간다면, 화두니 공안이니 하는 것이 따로 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나의 실상을 말한 것임을 안다면,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펼럭”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육조단경

- 無念爲宗 (생각이 없음을 종지로 삼음)
- 無相爲體 (형상 즉, 분별심이 없음을 본체로 삼음)
- 眞如是念之體, 念是眞如之用
(진여 [마음, 자성]는 생각의 본체이고, 생각이란 진여의 쓰임)



体(본체) 와 用(작용)

- 마음과 생각
- 선정과 지혜
- 물과 파도
- 물리법칙과 현상

体(본체)

用(작용)

Universe 4 Fundamental Fields

空性 (Sunyata)

	Fundamental Forces			
1. <i>Strong</i>	<p>Force which holds nucleus together</p>	Strength 1	Range (m) 10^{-15} (diameter of a medium sized nucleus)	Particle gluons, π (nucleons)
2. <i>Electro-magnetic</i>		Strength $\frac{1}{137}$	Range (m) Infinite	Particle photon mass = 0 spin = 1
3. <i>Weak</i>	<p>neutrino interaction induces beta decay</p>	Strength 10^{-6}	Range (m) 10^{-18} (0.1% of the diameter of a proton)	Particle Intermediate vector bosons W^+, W^-, Z_0 mass > 80 GeV spin = 1
4. <i>Gravity</i>		Strength 6×10^{-39}	Range (m) Infinite	Particle graviton ? mass = 0 spin = 2

(불법) 독립된 존재의 부정. 일체만물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단지 연기의 조건에 의해 현상이 일어나고 없어짐.

(심리) 우리는 상상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현실로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강박적으로 환상을 계속 투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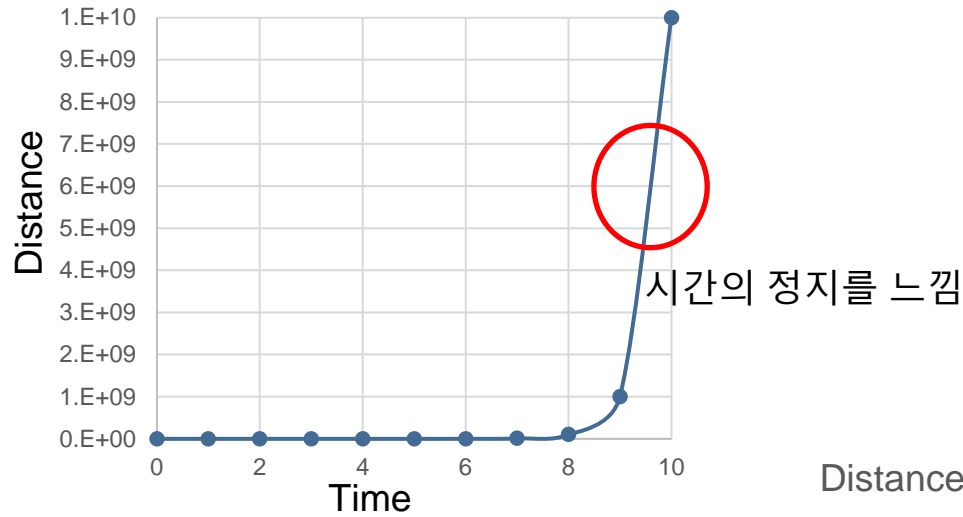
(물리법칙) Each energy field is invisible by itself and needs interaction between two particles.



관찰자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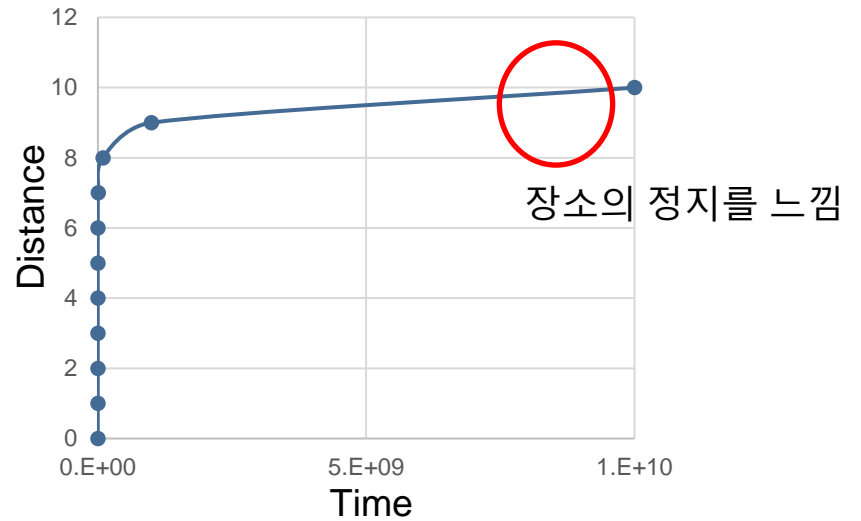
• 공간팽창시

Time-D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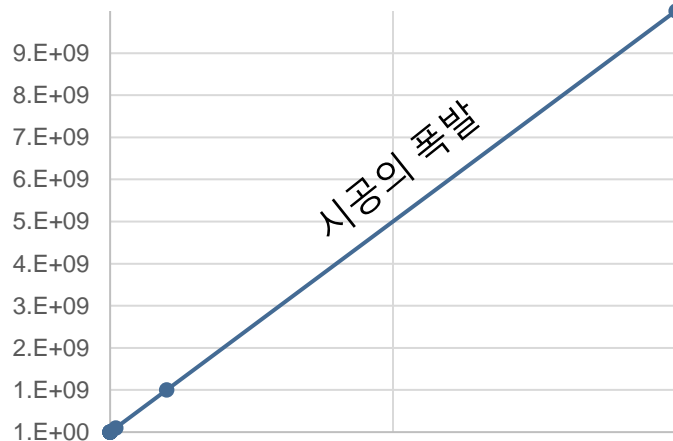


• 시간팽창시

Time- Distance



• 시공 대칭



Duality : Particle vs. Wave

● ● ● | Photon Energy

- The energy of a photon is given by this equation:

$$E = h\nu = mc^2$$

- where $h = 6.6262 \times 10^{-34} \text{ J}\cdot\text{s}$
 $\nu = \text{frequency (Hz)}$

色即是空

(불법)유형한것은 무형한것과다르지 않다. 일체만물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물리법칙) 이중성, 입자는 파동이 될수있고 파동은 입자가 될수 있다.



Uncertainty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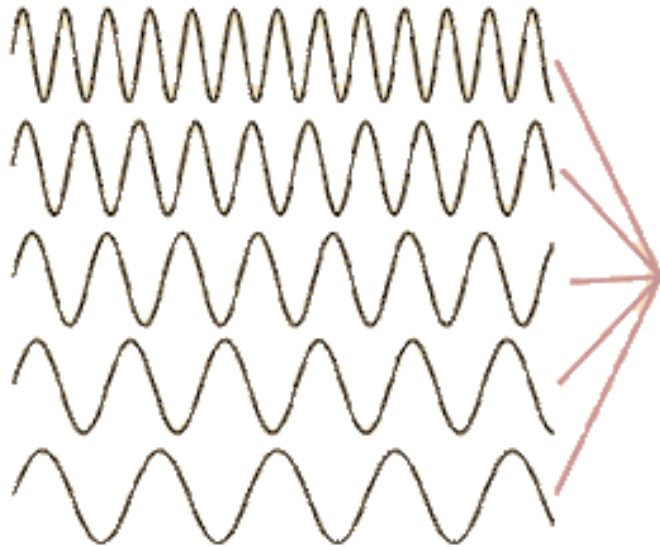
Precisely determined momen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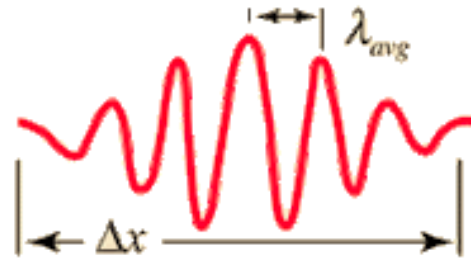
A sine wave of wavelength λ implies that the momentum is precisely known. But the wavefunction and the probability of finding the particle $\Psi^*\Psi$ is spread over all of space!

$$p = \frac{h}{\lambda}$$

p precise
 x unknown



Adding several waves of different wavelength together will produce an interference pattern which begins to localize the wave.



But that process spreads the momentum values and makes it more uncertain. This is an inherent and inescapable increase in the uncertainty Δp when Δx is decreased.

$$\mathcal{E} \cdot \tau = \Delta x \Delta p > \frac{h}{2}$$

中道

(불법) 양변을 초월함.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난 법은 공하다.
(물리법칙) 운동량이 정해지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위치가 정해지면 운동량이 정해지지 않는 법칙

諸法無我 諸行无常

(불법) 모든 법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
(물리법칙) 모든 에너지와 운동량은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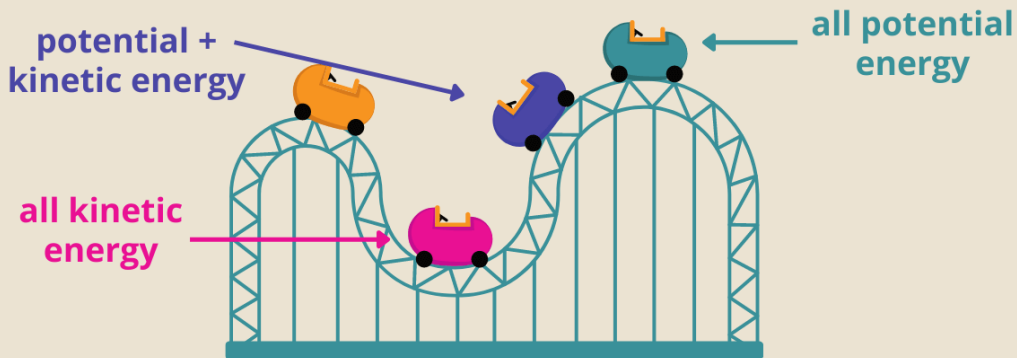
Energy Conservation Law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states that energy can change forms, but is neither created nor destroyed.

$$K_1 + U_1 = K_2 + U_2$$

In classical mechanics, the sum of the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of a closed system remains constant.



sciencenotes.org

12 缘起法

(불법) 인과법칙, 전생에 지은대로 현생에 받고 있고, 현생에 지은대로 내생에 받는다.

(물리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생성도 소멸도 되지 않고 변할뿐이다. 색계 및 영혼보존의 법칙



벽암록, 원오극근(1064-1135), 혜능-남악회양-마조 - 백장 - 황벽 - 임제 - 조주-

-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질문했다.
“ 무엇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달마대사는 말했다.

“ 만법은 텅 빈 것.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양무제는 다시 질문했다.
“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달마대사는 말했다.
“ 불식(不識).”

해석: 양무제의 질문에는 불법은 ‘성(聖)스러운 진리’이며 어떤 고정된 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달마는 이러한 양무제의 착각과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확연무성(廓然無聖)’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중생심으로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 달마대사는 “불식(不識)”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양무제는 자기와 달마라는 주객(主客)의 상대적인 대립과 차별심에 떨어졌고, 또한 달마대사 당신은 성스러운 성자가 아십니까? 라는 고정관념과 분별심으로 질문하고 있다. 달마가 ‘불식(不識)’ 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황제인 당신과 주객(主客)의 대립이나 상대적인 차별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열반경}에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게 의거하지 말며, 지혜에 의거하지 분별의식(識)에 의거하지 말라”고 설한 불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 식(識)은 중생심의 분별작용이며 불식(不識)은 불심의 지혜작용이라는 사실이다.



전강스님

꼭 법당이나 선방에서 참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 복잡한 가운데서 득력하는 것이 적정한 곳에서 좌선하는 것보다 10만배나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강 선사께서도 “참선은 농사지으며 왜 못혀? 생활 참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 끊고 여의고 돌아와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이 뭇고만 하는 건 그건 쪼가리 참선이요, 절름바리 참선이요, 소송참선 이지, 대승참선이 아녀. 농부가 쟁기를 지고 논 갈러 가는 것도 생사 해탈의 도리요, 여인네가 호미 들고 밭 메러 가는 것도 생사해탈의 도리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도 생사 없는 해탈의 도리인데 일체가 무엇이 아닌 것이 있으리오. 뭐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고 내 찾는 법이 그려. 그저 ‘이 뭇고’ 알수 없는 놈 하나면 그만이며. 밥 먹고 옷 입고 오고가는 소소영영한 주인공,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알수 없거늘 제가 무슨 이치를 붙여서 죽이지 말고,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알 수 없는 그 놈 하나를 갖고 비비고 나가라”고 하셨다.

간화선 ‘이 뭇고’ 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에게도 정치나 사업, 직장, 학업등 에서 막히는게 없게 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장애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을 등지면 무엇을 하든 얹어지고 넘어지고 만다.

그때마다 ‘아이고’라는 자조와 한탄 대신 ‘이 뭇고’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냐?



법성계 의상대사

<법성계>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집약한 7언 30구의 계송이다. 법으로 시작하여 불로 끝난다고 한다.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두모습이 본래없고 모든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니 진여의 세계로다.

無名無相絕一切 證知所知非餘境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이름도 붙일수 없고 형상도 없어 온갖것 끊겼으니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眞性甚深極微妙 不守自性隨緣成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참된 성품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니 자기 성품을 지키거나 집착하지 않고 인연따라 이루어지네.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하나속에 일체있고 여럿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여럿이 곧 하나로다.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한 작은 티끌속에 시방세계 머금었고 온갖 티끌 가운데도 또한 이와 다름없네.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무량원겁즉일념 일념즉시무량겁)

한량없는 오랜세월이 한생각 찰나요,찰나의 한생각이 무량한 시간이네.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 (구세십세호상즉 잉불잡란격별성)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른듯하면서도 모두가 현재의 이 마음에 함께 있어서 얽힌 듯 얽히지 않고 각각 뚜렷하게 이루어졌도다.

初發心時便正覺 生死涅槃相共和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부처를 이루고자 처음 마음 낼때의 그 마음이 곧 바로 깨달은 부처의 근본 마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언제나 함께하네.

理事冥然無分別 十佛普賢大人境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진리의 본체계(리)와 나타난 현상계가 한결같이 평등하여 분별할 길 없으니 수많은 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의 경지로다.

能仁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 (능인해인삼매중 번출여의부사의)

부처님은 고요한 해인 삼매 가운데서 온갖 불가사의한 법을 나투시네.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중생을 이익되게하는 허공가득한 진리의 보배가 비처럼내리고 중생들은 저마다 그릇에 따라 얻는다네.

是故行者還本際 息妄想必不得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그러므로 수행자가 이 도리를 얻어 본바탕에 이르려면 헛된 집착을 끊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네.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무연선교착여의 귀가수분득자량)

걸림이 없는 방법으로 여의주를 마음대로 잡아쥐어 진리의 고향에 돌아갈 자질과 능력대로 얻는다.

以多羅尼無盡寶 莊嚴法界實寶殿 (이다라니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신묘한 다라니의 다함없는 보배로서 온 세상을 장엄하여 보배궁전 만드네.

窮坐實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 (궁좌실제중도상 구래부동명위불)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에 자리에 앉았으니 옛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



신심명 승찬

3. 至道無難 至道무난- 도에 이르는 어렵지 않다.
唯嫌揀擇 唯嫌拣择- 오직 고르고 분별함을 싫어하니
但莫憎愛 但莫憎爱-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洞然明白 洞然明白- 분명하게 꿰뚫으리라.

4. 毫釐有差 毫厘有差-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天地懸隔 天地懸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나니
欲得現前 欲得現前-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면
莫存順逆 莫存順逆-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마라.

5. 違順相爭 違順相爭- 어긋고 따름이 서로 다투면
是爲心病 是爲心病- 이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니
不識玄旨 不識玄旨-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徒勞念靜 徒勞念靜-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를 쓰네.

6. 圓同太虛 圓同太虛- 둥글기는 큰 허공과 같아서
無欠無餘 無欠無餘- 모자라고 남을 것도 없으나
良由取捨 良由取舍- 취하고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所以不知 所以不知- 소이불어- 까닭에 한결같지 않다.

7. 莫逐有緣 莫逐有緣- 인연이 있어도 쫓아가지 말고
勿住空忍 勿住空忍- 공에 도 차마 머무르지 말며
一種平懷 一種平懷- 한 생각이 바르면
泯然自盡 泯然自盡- 자절로 없어질 것이다.

8. 止動歸止 止動歸止-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게 되고
止更彌動 止更彌動- 멈추었다 다시 움직이게 되면
唯滯兩邊 唯滯兩邊- 오직 양쪽止動끝에 막혀서
寧知一種 寧知一種- 영지일종- 어떻게 한 가지인줄 알겠는가.

9. 一種不通 一種不通-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兩處失功 兩處失功- 두 곳에서의 공로를 잃을 것이니
遣有沒有 遣有沒有- 있음없음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從空背空 從空背空- 공함을 쫓으면 공함을 등진다.

10. 多言多慮 多言多慮-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轉不相應 轉不相應- 서로 응하지 못하게 되고
絕言絕慮 絕言絕慮-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無處不通 無處不通-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11. 歸根得旨 歸根得旨-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隨照失宗 隨照失宗- 비춤을 따르면 근원을 잃나니
須與返照 須與返照- 모름지기 잠깐 돌이켜보면
勝脚前空 勝脚前空- 앞의 공함보다 더 뛰어나다.

12. 前空轉變 前空轉變- 앞의 공함이 변하는 것은
皆由妄見 皆由妄見- 모두 망령된 견해 때문이니
不用求真 不用求真- 참된 것을 구하지 말고
唯須息見 唯須息見- 마땅히 망견을 쉬어라.

13. 二見不住 二見不住-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慎莫追尋 慎莫追尋- 삼가 쫓아가서 찾지 말며
纔有是非 纔有是非- 조금이라도 옳고 그름이 있으면
紛然失心 紛然失心- 본 마음을 잃고 어지러워진다.

14. 二由一有 二由一有- 둘은 하나 때문에 있으니
一亦莫守 一亦莫守- 하나 또한 지키지 말고
一心不生 一心不生- 일심불생-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萬法無咎 萬法無咎- 만법에 허물이 없느니라.

15. 無咎無法 無咎無法- 만법에 허물이 없으면 법이 없
不生不守 不生不守-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마음이 없
能隨境滅 能隨境滅- 능함을 따라 경계가 없어지고
境逐能沈 境逐能沈- 경계를 쫓아 능한 것이 막힌다.

16. 境由能境 境由能境- 경계는 능함으로 인한 경계이
能由境能 能由境能- 능함은 경계로 인하여 능함이
欲知兩段 欲知兩段- 두 가지 구분을 알고자 하는가
元是一空 元是一空-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의 공이

17. 一空兩用 一空兩用- 하나의 공은 양단能境과 같아서
齊含萬象 齊含萬象- 삼라만상을 모두 포함하니
不見精確 不見精確- 세밀하고 거친 것을 보지 않으
寧有偏黨 寧有偏黨- 어찌 한쪽에 치우침이 있겠는가

18. 道體寬 道體寬- 큰 도는 본체가 넓어서
無易無難 無易無難-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
小見狐疑 小見狐疑- 좁은 견해와 여우같은 의심으로
轉急轉遲 轉急轉遲- 급하게 할수록 더욱 느려진다.

19. 執之失度 執之失度- 도에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必入邪路 必入邪路- 반드시 삳된 길로 들어가며
放之自然 放之自然- 놓아버리면 자연스러워서
體無去住 體無去住-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

20. 任性合道 任性合道- 도에 함하여 본성을 맡겨두면
逍遙絕極 逍遙絕極- 번뇌가 끊어져 한가롭게 노닐다
繫念乖真 繫念乖真- 생각이 매이면 참에서 어긋나니
昏沈不好 昏沈不好- 혼침불호- 혼미함에 빠져 좋지 않다.

21. 不好勞神 不好勞神- 좋지 않음으로 정신이 피로하
何用疎親 何用疎親- 어찌 소홀하고 친함을 쓰겠는가
欲趣一乘 欲趣一乘-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면
勿惡六塵 勿惡六塵- 육진을 미워하지 마라.

22. 六塵不惡 六塵不惡-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還同正覺 還同正覺- 도리어 깨달음과 같아서
智者無爲 智者無爲- 지혜로운 자는 함이 없고
愚人自縛 愚人自縛-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 얽매인다

23. 法無異法 法無異法- 법에는 다른 법이 없으나
妄自愛着 妄自愛着- 삼가 쫓아가서 찾지 않자
將心用心 將心用心-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豈非大錯 豈非大錯-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닌가.

24. 迷生寂亂 迷生寂亂-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
悟無好惡 悟無好惡- 깨달으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으니
一切二邊 一切二邊- 모든 상대相對의 두 가지는
良由斟酌 良由斟酌- 능히 헤아려 짐작하기 때문이다.

25. 夢幻空華 夢幻空華- 꿈속의 허깨비와 허공 꽃을
何勞把握 何勞把握- 어찌 잡으려고 애쓰는가.
得失是非 得失是非- 얻고, 잃고, 옳고, 그름을
一時放却 一時放却- 일시에 놓아 버리고 쉬어라.

26. 眼若不睡 眼若不睡- 눈에 만약 잠이 없으면
諸夢自除 諸夢自除- 모든 꿈이 스스로 없어지고
心若不異 心若不異-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萬法一如 萬法一如- 만 가지 법이 한결같다.

27. 一如體玄 一如體玄- 한결같은 본체가 깊어서
兀爾忘緣 兀爾忘緣- 우뚝 인연을 잊고
萬法齊觀 萬法齊觀- 만법이 모두 드러나면
歸復自然 歸復自然- 돌아오고 돌아감이 자연스럽다.

28. 若有歸復 若有歸復- 만약 돌아오고 돌아감이 있으면
在由真心 在由真心-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泯其所以 泯其所以- 그 까닭이 없자면
不可方比 不可方比- 불가방비- 어디에도 비교 할 대가 없다.

29. 止動無動 止動無動- 움직임을 그치니 움직임이 없고
動止無止 動止無止- 그쳤다 움직이니 그침이 없어서
兩既不成 兩既不成- 이미 둘을 이루지 못했거나
一何有爾 一何有爾- 어찌 하나가 있겠는가.

30. 究竟窮極 究竟窮極- 끝에 가서는 결국
不存軌則 不存軌則- 길이나 법칙이 있지 않고
契心平等 契心平等- 마음이 평등함에 계합하면
所作俱息 所作俱息- 짓는 것을 모두 쉰다.

31. 狐疑淨盡 狐疑淨盡- 여우같은 의심이 다해 말자면
正信調直 正信調直- 바른 믿음이 곧바르게 되어
一切不留 一切不留- 일체불류- 일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無可記憶 無可記憶- 가히 아무 기억이 없다.

32. 光明自照 光明自照- 자기의 빈 곳을 밝게 비추어
不勞心力 不勞心力- 마음으로 힘써 애쓰지 말고
非思量處 非思量處- 생각으로 헤아리는 곳 아니니
識情難測 識情難測- 뜻으로 판단해서 알기 어렵다.

33. 眞如法界 眞如法界-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에는
無他無自 無他無自- 남도 없고 나도 없어
要急相應 要急相應- 빠르게 상응하기를 바란다면
唯言不二 唯言不二- 오직 둘이 아님을 말하라.

34. 不二皆同 不二皆同- 둘이 아니면 다 한가지로
無不包容 無不包容-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
十方智者 十方智者-十方의 지혜로운 자는
皆入此宗 皆入此宗- 모두 이 근원으로 들어온다.

35. 宗非促延 宗非促延- 근원은 빠르고 늦음도 아니며
一念萬年 一念萬年- 한 생각이 만년 같아서
無在不在 無在不在-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十方目前 十方目前-十方이 바로 눈앞이로다.

36. 極小同大 極小同大-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忘絕境界 忘絕境界- 경계가 끊어짐을 잊어버리고
極大同小 極大同小-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不見邊表 不見邊表- 그 겉과 가장자리를 보지 못하네.

37. 有即是無 有即是無- 있는 것이 곧 없음이고
無即是無 無即是無- 없는 것이 곧 있음이니
若不如是 若不如是-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不必須守 不必須守- 반드시 꼭 지키지 마라.

38. 一卽一切 一卽一切- 하나가 곧 일체고
一切卽一 一切卽一- 일체일즉- 일체가 곧 하나이니
但能如是 但能如是- 다만 능히 이와 같다면
何慮不畢 何慮不畢- 어찌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랴.

39. 信心不二 信心不二- 분명한 마음은 둘이 아니고
不二信心 不二信心- 둘 아님이 분명한 마음이니
言語道斷 言語道斷- 말의 길이 끊어져서
非去來今 非去來今-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拈花窟跡虎騰酌 拈花窟跡虎騰酌
千萬人傷神失命 千萬人傷神失命
祖師意既余看破 祖師意既余看破
後日逢好三十棒 後日逢好三十棒
古佛叢林 古佛叢林 比丘 比丘 丈僧

● 신심명(信心銘) 해제(解題)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禪宗초조 달마조사와 2조 혜가대사의 법을 이은 제3대조사 승찬대사僧璨大
師께서 깨달음에 대한 요제要諦를 사언절구 계승으로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문자로서 최고의 문장이라는 평을 받은 시문詩文이라고 한다.

승찬대사僧璨大師께서는 수隨나라 양제煬帝대업2년[서기606년]에 입적하신 분이며 신심명信心銘은 원
래 서른일곱 개의 사구개로 되어 있으나 중간에 일부러 계승 두 마디를 비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마치 옛
날 초상肖像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후일을 기약한 어느 도인처럼, 대사大師께서는 이곳에 비밀종지를

심우도



심우
尋牛

소를 찾아 나서다



견적
見跡

발자취를 보다



견우
見牛

소를 보다



득우
得牛

소를 얻다



목우
牧牛

소를 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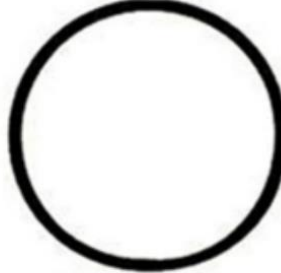
기우귀가
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망우존인
忘牛存人

소를 잊고 사람만 남다



인우구망
人牛俱忘

소와 사람, 둘다 잊다



반본환원
返本還源

근원으로 돌아가다



입전수수
入塵垂手

저자에 들어가 중생을 돕다



달마도

화가 김명국 17세기

